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홍낙민 루카

(1751-1801)



충청도 예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홍낙민은 29살에 진사가 되고, 37살에 문과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그는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한때 가성직 제도의 신부로서 성사를 집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회법을 알지 못해 행한 것이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는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을묘박해 때는 두려움 탓에 천주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 모친상을 당했을 땐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등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홍낙민은 이전에 없던 용덕을 드러냈다. 그는 체포된 뒤, 극심한 형벌과 문초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저는 천주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이를 멀리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 50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19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74(73), 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지혜 18, 6-9

화답송

시편 33(32), 1과 12.18-19.20과 22(●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 11, 1-2.8-19 (또는 11, 1-2.8-12)

복음 환호송

마태 24, 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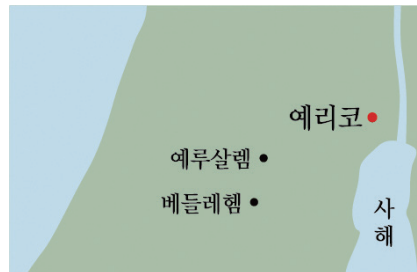
루카 12, 32-48 (또는 12, 35-40)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 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예리코에서 맞이한 해방의 해



예리코 유적지

올해 우리는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레위 25,10에 ‘해방의 해’로 소개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 등의 이유로 가산을 팔고 종이 된 백성이 가산과 원래의 신분을 되찾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최초의 해방은 이집트 탈출이었습니다. 그 뒤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맨 처음 정복하는 성읍은 예리코인데요, 이곳은 사해(死海)를 동쪽에 두고 유다 광야에 자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 이야기가 해방의 해인 희년의 모티프와 연결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호 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리코 정복 당시 계 약 궤와 뿔 나팔을 앞세우고 예리코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이렛날에는 일곱 번 돌입니다. 그런 다음 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예리코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뿔 나팔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때 자주 쓰이던 악기로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 6장에서 뿔 나팔 [쇼파르]는 ‘숫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벨]과 함께 쓰입니다: “숫양 뿔 나팔”(4.6.8.13절). 레위 25,9에서는 요벨이 ‘희년’의 뜻으로 쓰였고요. 요벨이 뿔 나팔과 함께 쓰인 건 탈출 19,13에도 나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직후 시나이산 아래 섰을 때 주님의 현현을 신호하는 ‘요벨’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백성이 주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첫 과정에서도 ‘요벨’ 소리가 재차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기의 요벨 소리는 하느님

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신호한 셈입니다.

또한 희년이 일곱째 해인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뒤 맞이하는 해이듯이(레위 25,8) 예리코 정복에서도 같은 상징수가 반복됩니다. 사제들이 분 뿔 나팔의 수가 일곱이고, 백성이 예리코 성을 돈 날수도 이레입니다. 이렛날에는 일곱 번 돌았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첫 성읍인 예리코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한 희년, 곧 ‘해방의 해’를 준비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예리코 정복에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인물은 라합입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도운 예리코의 창녀입니다(여호 2장).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마태 1,1-17)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때 세운 공으로 들어가게 된 듯합니다.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도운 건 비참한 창녀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내건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던 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한 노예 집단을 구해내 탈출시켰다는 소문을 듣고(여호 2,9-11) 자신도 같은 해방을 꿈꾼 건 아니었을까요?

여호 6장이 전하는 바 역시, 이스라엘 집안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첫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리코에서 울려 퍼진 뿔 나팔 소리는 희년의 요벨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창녀 라합의 해방을 알리는 선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 (2)

「교회헌장」 제13항 후반부

「교회헌장」 제13항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언급한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과 단일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갖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의 하느님 백성이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은 천상 왕국의 시민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지상의 민족들에게서 백성을 모으기에 지상에 있지만, 그 백성은 지상 왕국에 속하지 않고 천상 왕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전체는 성령 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신자들 간의 친교를 이루는 ‘천상적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특성이 민족들의 “현세적 선”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족들의 “역량과 자산과 관습”을 받아들여 그것을 “정화하고 강화하며 승화”합니다. 공의회에 이러한 가르침은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와 그 능력을 침해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물인 이 보편성으로 교회는 모든 민족이 그들의 좋은 것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전체와 각 부분이 일치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며 성장하게 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에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그 지체들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거룩한 봉사 직무를 받은 사람은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덕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각 개별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으로 교회 간의 친교를 이루고, 베드로 좌의 수위권은 개별교회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개별적 요소들이 일치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합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 사이에는 “영적 부요”와 “사도직 인력”과 “현세적 자원”에 관한 친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1베도 4,10)하라는 사도의 말씀에 따라, 개별교회를 포함한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도록 불린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은 여러 민족과 계층 사이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친교의 유대를 강화한다. 페루 막달레나데카오 성당의 나자레노 공소 설립 100주년 기념 미사를 주례하는 황주원 신부

13항의 마지막 단락은 보편성에 대한 결론으로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 일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일치는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보편적 일치”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가톨릭 신자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일치에 속하거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2코린 1,4)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인 7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경과보다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걱정이 더 컸다.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은 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딸과 사위가 교대로 밤마다 문 앞을 지킨다고는 해도 환자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저랑 같이 있을 때 오히려 상태가 더 심해져요. 얼마 전에는 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남편이 한밤 중에 문을 열고 나간 걸 몰랐지 뭐예요. 다행히 누가 먼저 신고를 해 줘서 경찰이 영감님을 모시고 왔지요. 그런 다음부터 며칠에 한 번씩은 영감님을 붙들고 있느라 밤을 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와 있으니....”

나는 환자를 서둘러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따님과 사위가 밤새 지키고 서 있겠다잖아요. 어르신보다 힘도 훨씬 더 셸 텐데 뭘 걱정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실 때는 정말 어디서 쫓는지 모를 정도로 힘이 넘쳐나요. 저는 이제 요령이 생겨서 아예 허리를 끌어안고 누워 버리지만 문 열고 나가는 영감님을 애들이 막을 수 있을지....”

나는 수술한 다음이니 회복에 전념해야 할 환자가 남편 걱정만 하고 있는 걸 보고 갑갑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에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그래서였을까? 잠시 말이 없던 환자가 처음으로 남편 걱정이 아닌 자신의 힘든 심정을 내비쳤다. 물론 그조차 남편과 연결된 일이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제가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벌써부터 아버지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고 성화지만 제가 안 된다고 막아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깨 때문에 영감님을 붙들 수도 없게 되었으니....”

나는 ‘이때다’ 싶어 환자에게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주욱 늘어놓기 시작했다. 환자가 이제라도 못 이기는 척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 환자가 자신은 도무지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진작부터 내 속이 상해 있었던 까닭이다.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영감님 입장에서 봐도 치매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밤마다 어르신을 힘들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영감님도 이제 마음 편안하시게 요양원으로 모셔서 좋은 간병인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세요. 계속 이러다간 어르신이 먼저 쓰러져요. 영감님 위해서라도 자신부터 돌보세요.”

듣고 있던 환자가 미소 띤 얼굴로 응답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다만 아직은 주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날마다 ‘오늘도 제가 영감님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남편을 돌보려고 하는 이 환자에게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돌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다. 당신 제자가 세상 사람들과 한목소리로 자신부터 돌봐야 한다며 떠들고 있을 때, 나의 주님께서서는 이 환자처럼 비록 자신이 약하더라도 기꺼이 다른 이를 돌보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며 그들의 돌봄에 힘을 주고 계셨던 거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성경공부 3단계 - 바오로 서간을 통한 바오로의 영성

주제	일시 / 본관 대강당	일시 / 통나무강당
제1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회심 안에 담긴 영성과 바오로 서간 개요	9/1(월) 14시	9/6(토) 16시
제2강 바오로 사도의 순례 여정	9/8(월) 14시	9/13(토) 16시
제3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구원과 성찬	9/15(월) 14시	9/20(토) 16시
제4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교회와 성령	9/22(월) 14시	9/27(토) 16시

회비 1인 8만원 [총4회, 교차 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모든 신자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11)

신청 ▶



제1회 의정부교구 동영상 공모전

신앙생활 속 희망, 웃음, 위로, 감동이 담긴 영상을 공모합니다.

모집기간 7/6(주일) ~ 9/7(토)

공모자격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영상규격 10분이내, FHD(1920X1080) 이상

출품방법 교구소식 공모전 게시물 참조 / QR 삽입

수상발표 10/12자 후보 및 홈페이지

시상내역 대상 1명 50만원 / 우수상 2명 30만원 / 장려상 3명 20만원

문의 031-850-1435, redglove@uca.or.kr

접수 ▶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8/24(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소강당

주례 김종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 루시아

의정부교구 제150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9/5(금)~7(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9/26(금)~28(주일) [2박], 10/17(금)~19(주일) [2박], 11/7(금)~9(주일) [2박]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2박] 15만원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미사 · 피정 ▶▶

한마음다락방 피정 - 18기

2천년 전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느님의 영적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날짜: 8/29(금)~3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단체와 가족, 부부 및 개인 모두 가능

인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9/12(금)~14(주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9/20(토)~21(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8/15(금)~23(토), 9/19(금)~27(토)

효소단식: 8/28(목)~31(주일)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9/12(금)~14(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10/11(토) 14시 ~ 12(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 (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계좌: 신한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필수)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여름 청년 피정 "OFF"

날짜: 8/15(금)~17(주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5만원

문의: 010-4882-967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지순례, 성베네딕도수도원 탐방

9/20(토)~23(화): 제주도~추자도~차귀도, 미사

11/15(토)~25(화): 바티칸 4대 대성당, 회년문 통과,

이탈리아 일주 (495만원)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서울대교구 제3지구 무료 치유피정 - 매월 셋째(수)

일시: 8/20(수) 11시~16시 (점심 무료)

장소: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연신내역 7번 출구)

내용: 4남매, 신부 3명, 수녀1명, 미사, 안수

강사: 구본홍 신부 (그리스도회 필리핀 빈민사목)

문의: 010-4444-126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피정(우도섬포함): 8/21(목)~23(토)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1/15(토)~18(화)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다물 피정의집 섬리의 길 섬 피정

1차: 9/5(금)~7(주일), 2차: 9/19(금)~20(토)

3차: 11/15(토)~16(주일), 4차: 12/5(금)~7(주일)

장소: 다물 피정의 집

문의: 033-461-7819, 010-8906-2141

강우일 주교와 함께 푸른꿈 제주섬 피정

제주섬에서 섬,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날짜: 9/18(목)~20(토), 10/30(목)~11/1(토),

11/11(화)~13(목)

장소: 성이시돌 피정의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사제·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우도: 8/23(토)~25(월)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0(금)~12(주일),

11/2(주일)~4(화)

성지순례(추자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0/26(주일)~29(수),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8/15(금)~18(월), 8/22(금)~25(월),

9/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출장피정신청)

예수회 말씀의 집 -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30일: 10/10(금)~11/10(월)

8일: 9/22(월)~10/1(수), 11/16(주일)~25(화),

12/10(수)~19(금)

단기: 9/12(금)~14(주일) [2박3일],

9/21(주일) [1일], 12/1(월)~4(목) [3박4일]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 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2박3일: 8/22(금)~24(주일),

9/19(금)~21(주일)

영신수련 2박3일: 9/19(토)~21(주일)

하루생태피정 숲: 9/26(금)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1박2일: 9/20(토)~21(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예수마음배움터

www.jesumaum.org

가을 문화 피정

1차: 10/10(금) 15시 ~ 11(토) 13시, 하삼두 작가

2차: 11/10(월) 15시 ~ 11(화) 13시, 윤광준 작가

3차: 12/5(금) 15시 ~ 6(토) 13시, 오루까 수사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12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교육 · 모집 ▶▶

연령회 활동실무(상장예식 중심) 과정 수강생 모집

연도 의미(예식)에 맞는 가창법과 상장예식의 진행 방법

일시: 9/13~12/13, 매주(토) 15시~17시

장소: 가톨릭대평생교육원 (부천시 역곡)

문의: 02-2164-6587, lifelong.catholic.ac.kr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행정 사무 (저작권 등 업무)

도서, 정기간행물 편집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접수: 8/22(금) 14시까지

문의: 이메일 mano@cbck.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하는 프로그램 [10일, 100만원]

날짜: 9/15(월)~24(수), 10/13(월)~22(수),

11/17(월)~26(수), 12/8(월)~17(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예수회 센터 가을학기 강좌 - 9월 개강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현장: 매주(화)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13주 과정

현장강좌: 수요반, 금요반 10시~12:30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월요반, 목요반 19:30~10시

영성과 철학상담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매주(화) 19시~21시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마석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서류: 자원봉사신청서,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이메일 kth0643@uca.or.kr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8368-5645 성가대 단장

031-593-4231 사무실

시스미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 성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희망의 순례자들 회년 - 9월에(愛) 동행

기간: 8/15(금)~9/28(주일)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내용: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방법: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순례길 스탬프 찍기,
순교자 성월을 달는 미사에 제출, 축복장 수령
(판매금 전액 기부)

문의: 02-2269-0413

※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

제대 꽃 이론과 실기 - 1년 과정 (한 학기 15주)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12호

내용: 이론과 작품 구성 (전례와 작품 구성 이론),
전례 주기에 맞는 제대 꽃 작품 실기 (매주)

접수: 8/29(금)까지 (선착순 마감)

scec.sogang.ac.kr 홈페이지 신청

문의: 010-5201-3271 이정자 교수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일시: 9/2~2/28, 매주(화) 14시~16시 [대면반]

9/4~2/28, 매주(목) 20시~22시 [온라인반]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움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5 가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날짜: 8/28(목)~11/14(금)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화

신청: 홈페이지 <https://culture.catholic.or.kr>

※ 8/11(월)부터 선착순 접수



안내 · 기타 ▶▶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evergreentc.modoo.at

이태리 정기회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3(화) 유럽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탈리아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2025 한티가는길 걷기행사

일시: 9/20(토) 09:30~16시

장소: 한티가는길 일원 hantigil.or.kr

인원: 1,500명 (선착순)

문의: 054-975-5151 (사)한티 (한티순교성지)

<http://hantigil.hanti.or.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추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16(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예수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후)	예수수도회 (서울)	010-7485-1964 예수수도회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로	서울수녀원, 명동가톨릭회관209호	010-9353-1773

마침 예식 (Ritus Conclusionis)

미사 중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마침 예식으로 넘어갑니다. 마침 예식은 강복과 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세기 마침 예식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는데, 아마도 영성체 후 별도의 예식이 없었거나, 로마 관습에 따라 단순히 “가십시오, 파견입니다.”(Ite, missa est.)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복은 사제의 인사와 교우들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는 미사 시작 때 나누었던 인사와 같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구원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주님께서 일상에서도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제가 교우들을 강복합니다. 전례 역사에서 사제의 강복은 늦게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6~7세기 「제1 로마 예식서」에는, 제대에서 내려온 주교가 개별적으로 강복을 청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복이 미사 끝부분에 들어온 건 10세기 무렵인데, 이 역시 한동안 주교에게만 유보되었습니다. 사제도 미사 후 퇴장하면서 개별적으로 강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13세기 전례서까지는 사제가 제대에서 강복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강복 양식에는 ‘보통 강복’ ‘장엄 강복’ ‘백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 강복은 사제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말하며 교우들을 향해 십자가를 그으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엄 강복은 미사 경본에 20개의 양식이 있으며, 전례 시기 또는 성인 축일과 기념 의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제가 교우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기도하면, 교우들은 매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일반 강복과 같은 양식으로 끝맺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는 과거 사순시기 평일 미사 끝에 바치던 기도에서 유래한 청원 강복으로서 미사 경본에 28개의 양식이 있으며, 그 방법은 장엄 강복과 같습니다.

강복 후, 사제(혹은 부제)는 손을 모으고 교우들을 향하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라틴어 파견사 [이떼, 미싸 에스트] (Ite, missa est.)는 6~7세기 「제1 로마 예식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고대 로마에서 의회, 군대, 장례식 같은 공식 집회에서 흔히 쓰이던 대표적 파견사였습니다. 의역하면, ‘이상으로 식이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사말을 전례의 의미에 맞게 우리말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옮겼고, 이 밖의 3개 인사말을 미사 경본에 추가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평화로우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우이 가십시오.**”

사제는 입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에 깊은 절을 한 다음 퇴장합니다. 다만, 미사 후에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마침 예식은 생략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1일 수산나: 전옥자
15일 마리아: 이복순, 최재춘, 박정희, 석마리아

전 레

- 행주성당 전대사 미사 안내
성모 승천 대축일(행주성당 주보 성인 축일)
일 시: 8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11시
※ 11시 교중 미사 집전: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당일 11시 미사는 매우 혼잡하오니 차량은 행주대교 아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 단 체

- 8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8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오늘은 교구 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8월 10일	주송자	오정화 아녜스
	배성은 소사아가다, 구미경 리베라따	
8월 17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우리들의 정성 (7/28 - 8/3)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9건 890,000원
주 일 헌 금 984,000원
- 감사헌금
박성자 스테파니아 5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378,000원
초 봉 헌 378,000원

* 정기후원 문의는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82-0168-5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 금주의 복음 말씀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화답송

